

A. 상황

다니엘 6장 1-9절 말씀

<1>

- 01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
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
- 02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
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

<2>

- 0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
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
- 04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
아무 근거,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
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
- 05 그들이 이르되
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
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
- 06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
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
- 0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
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
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
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
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
- 08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
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
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
- 0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

B. 다니엘의 믿음과 행동

다니엘 6장 10절 말씀

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
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
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
전에 하던 대로
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
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

C. 사건 전개

다니엘 6장 11-18절 말씀

<1>

11 **그 무리들이**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
12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
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
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는
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
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

왕이 대답하여 이르되

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

<2>

13 **그들이**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
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
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

14 **왕이**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
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
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

<3>

- 15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
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
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
- 16 이에 왕이 명령하매
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

<4>

-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
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
- 17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
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
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
- 18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
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